

# 터키와 카펫

김 상 용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명예교수

1988년 10월 25일-27일에 터키의 유서 깊은 Bursa 시에서 "IVth Textile Symposium"이 열렸다. 이 심포지움은 2년마다 열리는 회의로 한번은 터키 국내회의, 그 다음은 국제회의, 이렇게 교차로 열리는 회의이므로 국제회의는 4년에 한번씩 열리는 셈이다. 그러나 92년부터는 국제회의가 그 나라 경제 사정 때문에 취소되었으니 마지막 국제회의였던 셈이다.

필자는 이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초청되어 모든 출장 수속을 혼자 해야 했으므로 참석과 여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지금은 여행이 자유화하여 성지순례와 관광 등 터키에 여행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터키가 어떤 곳인지 잘 알려져 있으나 그 당시만 해도 터키에 다녀 온 사람이 거의 없어서 터키에 관한 정보를 서울 한남동에 있는 터키 대사관을 방문하여 얻을 정도였다.

심포지움은 Bursa시에 있는 건립된 지 500년 이상 되는 동로마식 원형 온천이 딸려 있는 Kervansaray Hotel에서 개최되었으며 모두 102편의 논문요약이 접수되었으나 36편의 논문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중 외국 논문은 모두 16편으로 한국, 영국, 미국, 독일 등 7개국에서 제출한 것이다. 논문집은 터키어와 영어로 인쇄된 400쪽 짜리로 되어 있었으며 발표는 터키, 영어 및 독일어로 동시 통역되었다. 필자는 "Effect of Zone-drawing Conditions on the Structure and Physical Properties of Ultra 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 Single Crystal Mats"의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도 터키어로 번역되어 논문

집에 실렸는데 이 논문의 번역은 Faruk Bozdogan 씨가 하였으며 그는 그 당시 대학원 학생으로 주취측에서 일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필자와 이메일로 서로 왕래가 있어서 그가 지금은 터키의 Bornova-Izmir에 있는 Ege University의 교수로 Eng. Faculty, Dept. of Textile Eng.과 Textile and Apparel Research Application Center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터키 탕(Turkish bath)은 1960년대 이후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본토의 원조는 어떤지 관심과 흥미가 있었는데 회의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있어서 같이 참석한 Clemson 대학의 미국인 교수와 함께 경험하러 갔다. 마침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에 붙어 있는 목욕탕이 Cekirge Old Spa로 14세기에 설립된 것으로 1512년에 새로 단장하였다고 하는데 건물 나머지 부분은 모두 Justinian 황제 때의 것으로 Byzantine 기둥으로 둘러 싸여 있다. 건물 가운데 대리석으로 된 큰 원형 pool이 있고 그 가장자리에는 사자머리 모양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온천수를 고대문양이 조각된 구리 바가지로 퍼서 목욕을 할 수 있었다. 요즘 한국에서와 달리 그곳에서는 나신으로 목욕을 할 수가 없고 욕장에서 주는 면수건으로 몸의 중요부분을 가리고 목욕을 하였다. 추가요금을 내면 욕장 입구에 있는 여러 개의 작은 방에서 때밀이(scrub)와 마사지(massage)를 받을 수 있었으나 우리는 초행이라 조심스러워 그것은 삼가고 목욕탕의 구경만 하고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일컫는 터키 탕과는 전혀 다른 우아한 목욕탕이었다.

그 12년 후인 2000년 8월에 필자는 재직하던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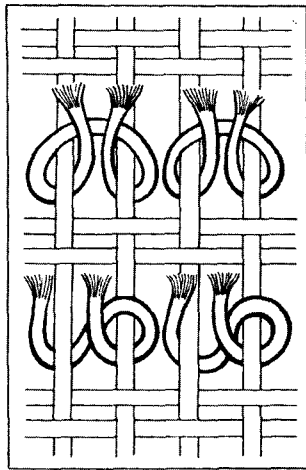


그림 1. 터키 매듭(그림 위)과 페르시아 매듭.

학을 정년퇴직하였는데 이 때 퇴직 동기생들이 7명이나 되어 퇴직 후 부부동반으로 유럽 여행이나 하자고 결의하여 또 다시 터키에 갈 기회를 가졌다. 전에는 Bursa와 Istanbul만 보고 왔는데 이번에는 터키 전역에 있는 성지 순례와 더불어 다시 보고 싶었던 동서 문명이 함께 있는 거리마다 아름다운 고적으로 덮여 있는 Istanbul과 재회하는 기쁨을 갖게 되었다.

Istanbul은 Byzantine과 Ottoman Sultan의 양대문명이 섞여 있는 곳으로 거리는 이러한 고대문명의 유적이 싸여 있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인 셈이다.

이와 같이 터키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문물(artefacts)이 많아서 사람의 눈을 놀라게 했지만 여기에서는 필자의 전공상 세계적인 터키 섬유제품인 터키 카펫을 소개한다. 아름다운 터키 카펫은 한마디로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월이 갈수록 더욱 아름다워지는데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조직이 더 치밀해지고 더 견고해져서 더 강해지고 따라서 색조도 더 진해지기 때문이다. 터키 카펫은 수공으로 매듭(knot)져서 만든 파일 카펫으로 그 용도에 따라서 깔개(rugs), 벽걸이, 소파 덮개, 무릎깔개(prayer rug, 기도할 때 무릎 부분에 까는 깔개)로 사용된다. 그 중 무릎 깔개는 그 크기가 90×135 cm가 되는 직

사각형 모양의 것으로, 이 작은 크기의 카펫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은 이보다 4-6배 크기의 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제일 수려하게 보였다. 또한 이것은 회교도들이 항상 끼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깔고 기도하는 물건으로 늘 몸에 가깝게 지니고 다니는 것이라 카펫 중 가장 아름답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카펫은 원래 BC 7세기경부터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 등 동양(orient)에서는 13세기 이후 매듭파일카펫(knot pile carpet)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양모, 견 또는 면을 경사로 하고 파일은 양모와 견을 사용하여 지역에 따라 독특한 문양을 만들어 넣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카펫의 제조 방법은 매듭짓는 방법에 따라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ghiordes(Turkish) knot 또 하나는 sehna(Persian) knot이다. 전자는 그림 1(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중매듭(double knot)으로 짜서 문양을 넣는 방법이고 후자는 그림 1(아래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개 매듭으로 문양을 넣는 방법이다. 따라서 전자의 방법으로 만든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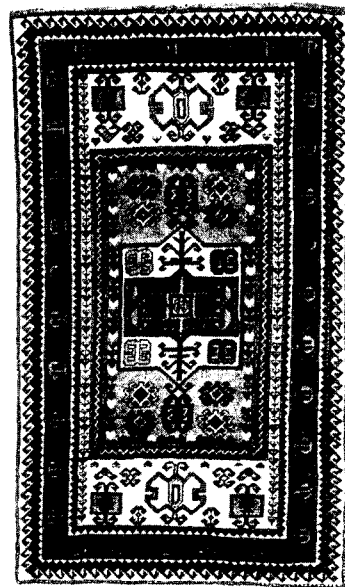


그림 2. 터키의 아름다운 무릎깔개.

---

오래 쓸수록 밀도가 치밀해져서 수명도 길고 더 수려해진다. 염색은 예전에는 천연염료를 사용했으나 근래에는 간혹 합성염료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터키 카펫에서는 붉은 색(적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된 색으로 이것은 부, 희열, 행복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고, 녹색은 하늘(天), 청색은 고귀, 위엄을 황색은 악의 퇴치, 흑색은 순수함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카펫 제작소는 터키의 중부 지방에 있는 Konya로 이곳은 13세기에 Seljuk Sultan

의 후원으로 설치된 카펫제작소로 Marco Polo의 기록에 의하여 유럽에 알려졌는데 아직도 이곳의 카펫은 여러 가지 크기로 만들어지고 고품질이고 또 부드럽고 은은한 빛깔을 자랑하며 정교한 매듭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로부터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필자도 1988년 터키 회의를 끝마치고 귀국할 때 무릎 깔개 한 개를 사왔는데 아직도 그 견고함과 문양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우리 집의 애장품(그림 2)이 되어 있다.